



량, 대구, 울산, 반월 등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본인이 직접 책임자로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는 자부심에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Q. 평소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엔지니어는 국가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이야기 합니다. 성실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화합을 통해 21세기 최고의 엔지니어링을 구현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엔지니어링 업계의 전문가로서 현재 동업계의 외국 진출이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도 국내의 제한된 일량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의 진출을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이 진출함으로 건설 및 기자재 판매시장도 우리나라에 유리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기술사들의 세부 전공이 필요합니다. 상수도기술사의 경우 예를 들면 정수처리, 하수처리, 배수관망 등의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실력을 갖춘 기술자가 되어야 외국 기술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및 리포트 실력을 평상시 틈나는 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Q.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한 좌우명은 없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정무용 위원장님께서 어디 좋은 신랑감 있으면 중매 좀 서주세요. 집사람은 안으로는 살림하고, 밖으로는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저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 주십시오.

요즘 한국기술사회 활동사항을 보면 기술사 주관부서 일원화 추진을 비롯하여 특급기술자 제도개선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사들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게 사느라, 한국기술사회를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미력하나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가기술 최고의 자격인 기술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노력하여 글로벌 무한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평생교육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乙酉年 새해 모든 기술사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화합을 통해 21세기 최고의 엔지니어링을 구현하자”

일 시 : 2005년 1월 13일 14:30
장 소 : (주)건화엔지니어링 부회장실
참석자 : 정조화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홍보위원장, 김경수 대리